

강진 마랑놀토수산물시장 개장...마랑항 인파로 '활기'

하루 관광객 7천여명 방문...신선 수산물 값싼 가격 판매 LED바다분수·AI포토존 등 MZ·가족 관광객 콘텐츠 보강

강진군 마랑놀토수산물시장 개장일에 7천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올 한해 도 대박 행진을 예고했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개장 행사는 '3겹 다짐·3無 약속' 실행 선언문 낭독과 성공 기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목포 MBC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현장 녹화방송도 함께 이뤄졌다.

당달아 '불타는 트랜트 TOP1' 손태진, 배일호 이소나 외에도 문초희, 품공, 김현진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은 지난 2015년 개장 이후 2023년까지 106만명 이상이 다녀가며, 총매출 1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행사 기간 중 운영·판매부스는 횡집 등 음식점 4개소, 수산물코너 7개소, 견어물 판매장 2개소, 길거리음식 6개소, 할머니장터 10개소 등 5종 29개소로 싱싱한 수산물과 다양한 먹거리를 매주 토요일마다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군은 체형, 의상, 포즈 등 다양한 요소를 변경해 멋진 프로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포토 부스와 무중력 퍼포먼스, 공중 부양 포토존을 새롭게 선보이고 LED바다분수와 미디어 파사드 설치로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MZ세대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겨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진군이 지난달 27일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을 개장한 가운데 하루 만에 7천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사진은 개장식에 인파로 북적이는 마랑항 모습. <강진군 제공>

이와 함께 토요일마다 밴드공연, 퓨전국악, 마술쇼·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관광객 노래자랑을 통해 방문객들이 숨겨진 재능과 끼를 표현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즐거움을 확대했다. 마랑 전판대 카페에서는 로봇커피머신이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며 마랑의 명물이자 천연기념물인 까막섬, 고금대교 등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또 컬러데이를 통해 특정한 색의 옷을 입고 전판대 카페를 방문하면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은 최고 신선, 최

고 품질, 최고 저렴한 3최(最)와 외국산, 비브리오, 바가지요금(없는 3무(無))의 운영 전략을 고수해오며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행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김용구 상인회장은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올레도 친절한 서비스와 함께 신선하고 맛 좋은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올해는 강진반값 가축여행을 통해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을 그 어느 해보다 가성비 높게 즐길 수 있다"며 "금요일은 병영 불금불파에서, 토요일은 마랑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은 지난달 27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강진군 마랑면 미항로 중방파제 내에서 10월2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된다. <강진=정영록 기자>

완도 해양치유센터 '효능 입소문'...2만명 방문 돌파

해조류·머드 활용 거품 테라피·다시마팩 등 다채 관리공단 설립 등 경쟁력 강화...50%할인 행사도

국내 최초로 개관해 힐링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완도 해양치유센터 방문객이 2만명을 돌파했다.

1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지난달 25일 기준 2만705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24일 개관한 해양치유센터는 해수와 해조류, 머드 등 완도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팰라스폴, 명상풀, 해

조류 거품 테라피, 머드·스톤 테라피 등 16개의 테라피실로 구성됐다.

지난3월에는한층더업그레이드된테라피를 제공하고자 개별 욕조에 미역, 다시마 원물을 넣은 물에 입욕하는 '해조류 스파 테라피'와 완도산 다시마를 활용한 마스크팩, 스톤테라피실을 추가했다.

해양치유센터 이용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으며

특히 30대부터 50대, 60대로 갈수록 이용객 수가 늘었다.

경남 하동군에서 방문한 한 관광객은 "뉴스에 나온 해양치유센터를 보고 무작정 완도로 왔다가 한 달 살이를 하게 됐다"며 "매일 팰라스폴에서 수중운동을 하니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풀리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점이 가장 좋았다"고 재방문의사를 밝혔다.

완도군은 더 많은 치유객 유입을 위해 센터 이용료를 할인하고 있다. 군민의 경우 평일 50%·주말 30%, 3인 이상 가족은 50%, 전남도민과 10인 이상 단

체 방문은 20%, 협약 기관은 30%를 할인한다.

또 지역으로 운영했던 해양치유센터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인력 확보, 치유 서비스 개발, 해양자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등을 통해 완도형 해양치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공단 직원 공개 경쟁 채용 필기 시험과 면접을 거쳐 오는 6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단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완도=윤보현기자>



명상풀.



해조류 스파 테라피.



머드 테라피.

<완도군 제공>

목포시 출연기관, 부당하고 불복 재심서 '초심유지'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과 부당해고 사실 적법

목포시 출연기관이 지역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제기한 재심 신청에서 '초심유지' 판정을 받았다.

1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과, 목포시 한 출연기관이 신청한 파면근로자 A씨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노동위는 앞서 A씨가 파면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 받은 부당해고 판정 사실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초심유지'를 결정했다. 중앙노동위 심판결과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지역노동위원회의 심판대로 원

직복직을 시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강제이행금 제도 등이 있어 출연기관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파면근로자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결과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지난 2월28일부터 목포시장을 상대로 복직 투쟁을 목포시청 정문, 목포역, 목포버스터미널, 평화광장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목포=정해선기자>

함평나비축제서 '바나나 따기' 인기

함평군은 1일 "함평에서 처음 따보는 바나나" 체험 행사를 제26회 함평나비축제 기간 함평엑스포공원 친환경농업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바나나 수확체험 프로그램은 4세부터 13세의 어린이와 취약계층 관광객이 함평엑스포공원 친환경농업관에서 직접 재배한 바나나 나무에 올라가 바나나를 수확하고 바로 맛볼 수 있는 오감체험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오는 6일까지 1일 2회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체험할 수 있으며, 요금은 별도로 받지 않는 대신 선착순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축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평=김연수기자>

"아이 낳으면 군이 키운다" 영암아이종합계획 확정

결혼·임신·육아 등 49개 사업...2천924억 투입

영암군은 1일 "지난달 29일 군청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5개년 종합계획(이하 영암아이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위원회'가 심의회를 열고 확정된 영암아이종합계획에는 '군민이 낳으면 영암군이 키운다'를 기치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육아환경조성 ▲교육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7개 분야 49개 사업이 담겨 있다.

2028년까지 영암군 17개 부서가 2천92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

역사회가 함께 영암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구조를 정착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심의회에서 우승희 군수의 위



신안 '100+4 피아노섬 축제' 성료

해변 포토존·버스킹 등 볼거리 선사

신안 '100+4 피아노섬 축제'에 1만6천 600여명이 방문하면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사진> 1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 자은도 양산해변을 배경으로 펼쳐진 '100+4 피아노섬 축제'가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자은도에서 열렸다.

해를 거듭할수록 100+4 피아노섬 축제는 단순한 음악 행사를 넘어, 문화와 예술이 함께 숨 쉬는 문화 예술 축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100+4 피아노섬 축제가 단순한 축제 이상을 넘어 피아노 아티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들도 직접 피아노 연주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보라해 댄스 페스티벌과 신안 세

계 김밥 페스타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려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해변에 마련된 포토존과 곳곳에서 열린 피아노 버스킹은 축제의 풍미를 더하며,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전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100+4 피아노섬 축제는 단순한 음악 행사를 넘어, 문화와 예술이 함께 숨 쉬는 문화 예술 축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100+4 피아노섬 축제가 단순한 축제 이상을 넘어 피아노의 선율을 통해 전국의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감동을 전달하는 행복의 장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자>

"해남서 귀농·귀촌 미리 경험해보세요"

귀농 체류형 지원센터 교육생 17세대 모집

해남군은 "오는 7일까지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 개소한 체류형 지원센터는 거주공간과 교육시설을 통합한 원스톱 교육시설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해남군에 이주한 초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기 교육생이 입주해 20명 중 10명이 해남군에 정착하면서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이번 2기는 올해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총 8개월간 운영된다. 입교생들은 센터 내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영농 기초방, 해남 알아보기 등 총 90시간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귀농어업인 등 체류형 지원센터가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필수 입문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남군만의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주택과 실습농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시설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기자>

독주택 17동을 비롯해 교육생들의 편의와 친목 도모를 위한 체육단련실, 동아리방, 독서실과 영농실습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하우스 및 공동실습농장이 마련돼 있다.

시설 이용료는 주택면적에 따라 보증금 80~100만원에 월 12~15만원이며 전기·가스 요금은 입교생이 직접 한전과 가스공급업체에 사용한 만큼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귀농귀촌희망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531-4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해남군 귀농어업인 등 체류형 지원센터(해남군 계곡면 둔주포안길 18)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귀농어업인 등 체류형 지원센터가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필수 입문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남군만의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주택과 실습농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시설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기자>